

Contents

01	11	-
	13	
03	16	(11)
	17	-12
09	19	-

KRILA _ 2011

2011 12

Newsletter 29

TEL. 02-3488-7300
FAX. 02-3488-7309

e-mail : newsletter@krila.re.kr

(www.krila.re.kr)

Newsletter



권두언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기반, 커뮤니티 비즈니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읍면동 등의 지역사회(커뮤니티)에 기반을 두고 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의 역량과 지역 내의 자산을 바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즈니스 원리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커뮤니티재생을 위하여 1975-1976년 ‘단기고용창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출발한 영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사회기금 등이 공동으로 출자·관리하면서 지역주민을 고용한다. 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해 재투자하며, 사업 참여자 개개인에게는 분배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1990년대 중반 일본은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하여 대도시 중심부에 생겨나는 일본형 도시내부(inner-city) 문제가 제기됐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커뮤니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됐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가 도입되었다. 최근에는 마을만들기와 연계하여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 초 커뮤니티

()

비즈니스 사업을 출범시킨 영국은 현재 시장규모가 60조원대로 성장하였으며, 2000년대 초에 영국 모델을 벤치마킹한 일본에서도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시장 규모가 2008년 2400억엔(약 3조7000억원), 2011년 2조2000억엔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주민자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것이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이라는 명칭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주로 읍면동 청사 내부에서 취미나 레크레이션 등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센터가 서서히 다양한 형태의 ‘마을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공공성을 가지면서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다른 마을사업의 재원조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을사업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바, ‘커뮤니티비즈니스’는 향후 주민자치사업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목표를 ‘비즈니스’가 아닌 ‘커뮤니티 활성화’에 두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현황과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사적 영역에 피해가 되지 않는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점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관에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합의가 필요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중앙-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시민단체-중간협력지원조직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체제 구축이 절실하다.

